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2. 25(수)
(사진 12시 이후 배포)

조달청 우수제품…AI산업 활성화 위한 심사 도입

- 우수·혁신제품 심사분야에 AI 신설 등 심사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 핵심 제조공정 중심 직접생산 확인으로 업계부담 완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 정기총회에 참석해 (유)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품의 특성에 맞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의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일반 심사분야 대비 기술심사 배점 상향, 가점 확대 등 AI적용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보 청장은 “우수·혁신제품 제도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명실상부한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수·혁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500여개사가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의 16% 수준인 5조 3천억 원 규모의 우수·혁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책임자	과 장	성기석 (042-724-7281)
		담당자	사무관	최영재 (042-724-7283)



참고

조달청장 표창 우수제품 유공기업 13개사

번호	업체명	대표자	지정제품	비고
1	(유)애니체	박점희	강연대	우수제품
2	(주)패스넷	정정훈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3	서전엔지니어링(주)	유경하	빌딩자동제어장치	
4	(주)에스카	정태웅	영상감시장치	
5	신정개발특장차(주)	정봉채	노면청소차	
6	국제텔레시스(주)	박병헌	통합배선반	
7	(주)스마트에스지	권영화/이상순	아스팔트방수시트	
8	(주)에이디엠	정채욱	구내방송장치	
9	(주)인터엠	조남용	구내방송장치	
10	(주)삼정디씨피	이문승	경질폴리염화비닐관	
11	주식회사 엔이알	김수경	공기청정기	혁신제품
12	(주)엘티에스	주현경	벽천정용흡음재	
13	주식회사 워터아이즈	임형엽	통합관리솔루션	